

# 동네상권 효자 '아동돌봄쿠폰'

### 183만 가구 9445억원 지급...동네마트·음식점서 최다 소비 광주·전남 지난달 300억원 소비...골목상권 살리기 효과 확인

아동수당 지급 구구를 대상으로 지난 달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이 광주·전남지역에서 300억원 상당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금액의 상당 부분은 영세수퍼와 음식점 등에 사용되면서 동네상권 살리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지난 달 13~30일 보름 동안 지역에서 소비된 금액은 광주 147억원·전남 150억원 등 297억원으로 집계됐다.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급 구구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이 지난 달 13일 지급됐다. 포인트를 받은 보호자는

총 183만명이며, 해당 아동 수는 약 236만 명이다. 돌봄포인트는 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7개 주요 카드와 13개 은행사가 참여하고 있는 비씨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됐다.

복지부가 이들 카드사로부터 소비내역을 받아 분석해보니 지급된 돌봄포인트 9445억원 중 현재까지 약 4100억원(43.5%)이 지역에서 직접 소비됐다. 일주일에 지급 포인트의 약 20%씩 소비된 셈이다.

광주에서는 배정액 300억원의 49%에 해당하는 147억원이 쓰였고, 전남은 289억원 가운데 51.9%에 달하는 150억원이 사용됐다.

지역 소비 비율은 전국 평균 43.5%를 크게 웃돌았고, 광주와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7번째, 4번째로 돌봄포인트를 빨리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54.0%), 세종(53.3%), 강원(52.0%)은 배정액 대비 50%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37.1%), 부산(37.9%), 경기(41.8%) 등에서도 약 40%를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은행인 광주은행 카드도 돌봄포인트를 사용한 가정은 4526가구였고,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은 23억7400만원에 달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돌봄포인트가 쓰인 곳은 대부분 동네수퍼와 음식점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아동돌봄쿠폰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정책 취지가 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전국 쿠폰 소비처를 분석해보니 동네마트가 37.9%(1559억원)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16.9%(697억원), 의류·잡화 8.7%(356억원), 병원·약국 8.5%(351억원) 등 4개 분야가 전체 소비의 72%(2963억원)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지역 주유소(124억원·3.0%), 커피전문점(115억원·2.8%), 뷰티·헬스(111억원·2.5%), 여가·레저(103억원·2.5%), 베이커리(102억원·2.5%), 학원(93억원·2.3%)이 주요 사용처로 분석됐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유휴업소,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귀금속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2.17 (-13.23) ↓ 금리(국고채 3년) 0.886 (-0.040)
- ↓ 코스닥 684.21 (-0.83) ↑ 환율(USD) 1224.80 (+4.30)



12일 송중목(가운데) 광주은행장이 반려동물 가정 고객을 위한 '멍이냥이카드' 출시를 기념해 1호 가입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펫팸족 우대카드 출시

### 멍이냥이카드 결제시 10% 캐시백 제공

광주은행은 반려동물 지출비용에서 1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멍이냥이카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료와 간식비, 미용, 질병 예방·치료비 등 반려동물 관련 지출을 절약할 수 있도록 10% 캐시백을 제공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마켓·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커피전문점, 5대 편의점 등에서 이 카드를 이용하면 구매비 5%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진을 카드 앞면에 수수료 없이 삽입해줄기로 했다. 해당 카드는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과 광주은행 모바일 앱(m.kjbank.com)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올해는 6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4가구 중 한 가구는 '펫팸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 수가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반려동물 가정 고객에 단순한 금융 우대 이월 제공이 아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멍이냥이카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롯데쇼핑 '마늘 기획전'

### '고흥 농가 돕기' 27일까지

롯데쇼핑은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수퍼가 '고흥 마늘농가 돕기 기획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달 14~27일, 롯데수퍼는 13~19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과 학교급식 판로가 막히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 햇마늘은 제주를 빼고 전국 마늘 주산지 중 출하가 가장 빠르며, 맵지 않아 장아찌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성 롯데마트 신선식품 1부문장은 "롯데마트와 롯데수퍼가 공동으로 물량을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귀근(왼쪽 세번째) 고흥군수와 박미화(왼쪽 두번째) 풍양농협 조합장 등이 지난 1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흥 마늘농가 돕기 기획전'을 홍보하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배추 한포기 7000원...전년비 180% 폭등

### aT 소매가 소식지 '얼마요' 발행...상추 25%·대파 11% 상승

광주지역 배추가격이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180% 가량 뛰었고, 오이는 외식업체의 주문이 줄어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졌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1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리는 농산물 소매가를 나타낸 소식지 '얼마요'를 발행했다.

주요 농산물 가운데 배추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80%, 2주 전 대비

40% 뛰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날 기준 배추 3~4kg 1포기는 7000원에 팔리고 있다. aT는 겨울배추 출하량이 줄고 시설배추 출하가 늦어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 5월 외식수요가 늘면서 상추(25%), 대파(11%), 돼지고기(7%) 가격은 2주 전보다 올랐다. 반면 오이는 기온이 상승해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비, 2주 전 대비 각각 28.6% 내린 10개당

5000원의 가격을 나타냈다.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공급물량이 늘어난 잡의(21.8% ↓), 방울토마토(16.7% ↓)는 2주 전보다 가격이 내렸다. 달걀(30개) 1판은 2주 전보다 4.4% 하락한 4400원에 팔리고 있다.

aT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한 순차적 등고 개학 연기 등으로 급식수요가 유동적인데다, 각종 기념일이 많았던 연휴 이후 씹음을 줄이면서 요식업소의 소비둔화가 예상돼 채소류 대부분 품목이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정보 KAMI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2차 코로나 대출 신청 지방은행 창구서도 가능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 신청을 지방은행 창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한정하던 대출 접수창구를 전체 지방은행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18일부터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접수가 시작된다. 대출 금리는 연 3~4%, 한도는 1000만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인증비·시험비 일부 지원...중기청 참가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9일까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2020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유럽(CE), 미국(FDA), 중국(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을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과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에게는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이나 수출감소 예상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수출중소기업도 추가선정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